

“중국 보타산 불공거 관음전 일본인 아닌 신라상인 조성”

조영록교수 '선화봉사고려도경' 기록 근거 주장

중국 보타산 조음동 불공거 관음전의 개기(開基)는 일본 헤이안시대에 의해서가 아닌 신라상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여태까지 일본·중국 학계에서는 <불조통기>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 헤이안시대가 보타산 불공거 관음전의 터를 잡았다는 설을 정설로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조영록 교수(동국대·사진)는 <선화봉사고려도경>의 보타산 조음동 불공거 관음전이 신라상인에 의하여 조성됐다는 기록에 근거, 이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7월8일~9일 중국 보타산과 절강대 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땀과 눈물' 동아시아문화회(대장운명철) 성공 2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중 해상교류와 불교문화'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친 조 교수는 "1123년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다녀간 서공의 <고려도경>은 그들이 명주에서 출항하여 보타산을 거쳐 고려에 체재한 후 귀국해 그 견문한 바를 일기체로 쓴 견문기이다. 이는 1269년 지반이 지은 <불조통기>보다 1세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더 신빙성 있다"고 지적했다.

<불조통기>에는 일본의 헤이안시대가 오대산에서 모셔온 관음상이 좌초하자 해변에 초목을 지어 관음상을 모셨다며, 조공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건너지 못함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려도경>에 의하면 신라상인들이 오대산에 갔다가 관음상을 조각하여 실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으나 앞초에 걸려 배가



조영록교수

나아가지 않아 보타산에 있는 보타원에 관음상을 모셨다고 나온다. 지금도 보타산 앞바다에는 그 배가 좌초했다는 신라초(新羅礁)가 있다. 조 교수는 바로 이부분에 의거해 보타산 관음도량의 시원은 신라상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중국 절강일보와 주산일보 등이 1면에 대서특필 하는 등 현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해 중국의 불교계와 학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밖에 최현식 박사(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가 '신라 범일선사의 낙산사 중창과 그 의미'를, 박옥걸 교수(아주대)가 '10~12세기 한·중간의 인적교류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런 학회에서는 보타산 불공거 관음전(사진)과 낙산사 흥련암에 대한 유사성 비교도 논의됐다.

“문아대사 업적 원효에 버금”

고영섭씨 주장

동아시아 신구유식학의 총섭자라 평가받는 서명 문아(西明 文雅)대사. 원효보다 더 많이 알려진 문아대사는 우리 역사의 주류에서 잊혀졌던 인물이다. 이러한 문아대사를 새롭게 조명할 책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불교영상이 펴낸 <문아대사>를 집필한 고영섭 강사(동국대)는 "역사 속에 남긴 문아대사의 업적은 원효와 의상에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국인 신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며 "문아의 정체성과 인식을 명료히 밝힘으로써 그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아대사는 7세기 동아시아의 대표적 학통이었던 자은학통의 주요담론인 오성각변설(살아있는 것들은 이미 다섯 가지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에는 불성이 내재해 있어 끝내는 성불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래의 주요 담론이었던 구유식의 9식설을 취하지 않고 신유식의 8식설을 취함으로써 제9아마라식을 제8아뢰야식의 청정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등 독창적인 불교 이해의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 책은 유식학의 대표적 교편이었던 3시설을 단지 설하는 시각을 전지함으로써 조화와 통일 의 입장에서 불성을 이해했던 문아대사의 독특한 해석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학술재단 지원 불교학술지 4개뿐

8월25일 신청마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해마다 독립 학회 및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평가해 지원하는 발간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불교관련 학술지는 단 4개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발간비를 지원받는 학회 가운데 겨우 3%에 불과한 수치이다. 지난해 신청해 올해 학술지 발간비용을 지원받은 학회는 모두 162개. 이 가운데 불교관련 학회는 국제선무학회, 한국불교

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종교학회 등 4곳에 불과해 불교학계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열악한 불교학계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8월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데 신청사항은 1천2백만원, 국내에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로 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신청한 학회면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출간

지난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된 무차선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16편을 수록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이 최근 출간됐다.

특히 논문 외에도 논평문과 토론을 녹취해 기록하는 등 무차선회를 지면으로 옮겨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논문집에는 '동북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여러불교사상 전통 하에서 본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등이 수록됐다. 또 서용성님 법어 2편을 비롯해 혜암·진제스님과 김대중 대통령 축하메시지도 담겨져 있다. 비백교학연구소 측은 "조사선에 대한 연구 토대 마련을 위해 논문집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선스님은 선승이다”

민족사 학술총서 '도선연구' 나와 국내학자 9명의 논문 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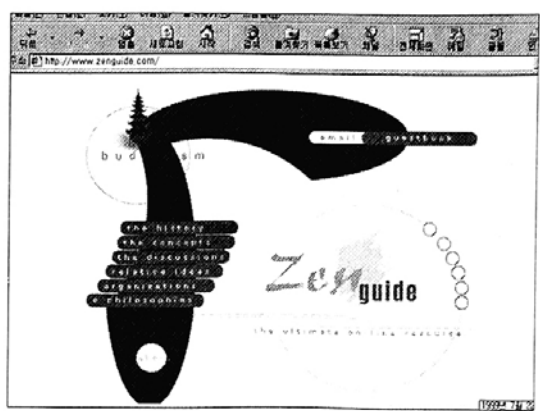
성립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유청의 도선국사 비문은 선승으로서의 도선이 선법을 전하는 기록이 아니라 고려왕실과의 인연관계 및 고려왕국의 정당성을 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존재와 권위를 빌려 입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찬술로 평가했다.

도선이라는 인물이 전설 속에서 어떻게 변이하고 있는지를 모색한 '도선전설의 변이와 형성'에서 이준근 교수(목포해양대)는 "도선의 출생을 식자층에서는 고귀한 혈통으로 보려 하였고 순수한 구전계층의 서민들은 미천한 출신으로 보려 했다. 행적은 입당 산세자르기 방아질기의 산화로 나누어 변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구비자료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문헌자료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변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문 도선상 소묘·김지경 △도선국사 비문사탐설의 연구·양은용 교수(원광대) △도선선록과 도선의 오해·김정호 관장(전남 영산호관광 농업박물관) 등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도선연구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 가이드

교리·수행·선불교영상등 정보제공 梵·英 불경어휘 전자 사전 서비스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친숙한 불자라면 당연히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관심이 갈 것이다. 또 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앙, 즉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소개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불자 네티즌이 있다면 '선 안내(Zen Guide)' 사이트를 방문해 불지하다.

'선 안내' 사이트는 미국인 불자 파이버(42)씨가 개설한 개인 홈페이지로, '교리' '수행' '불교사' '불교철학'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불자가 제공하는 정보이지만 깊이 있고 회소성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의 디자인, 정보구성, 링크 등은 개인 홈페이지 개설을 꿈꾸는 불자 네티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목향을 풍기는 커다란 아이콘과 원형을 뜻하는 둥근 원으로 구성된 이 사이트의 메인(Main) 페이지 메뉴 색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즉 '불교사', '불교교리', '토론방', '조직', '불교철학', '선(禪)비디오'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 비디오'에서는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선불교'(다이도 로리) 등을 비롯 6종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폭넓은 정보를 원하는 불자 네티즌을 위해 '선불교비디오(Zen Video)' 사이트와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교리'에서는 법·영 '불경어휘사전'을 제공한다. 알파벳으로 구분된 이 전자사전에는 범어를 영어로 음역하고 뜻을 설명해 놓은 500개의 용어들이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파이버씨가 입력해 놓은 <금강경> 원문을 읽을 때, 각 낱말을 '불경어휘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금강경>도 읽고 여취도 공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환경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브리태니커>, <웹스터>, <롱맨> 등의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어휘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buddhapia.com)

△ 사이트 주소 http://www.zenguide.com/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택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법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86 변형 394쪽 / 값 6000원